

‘피아노 말아톤’ 오유진씨 콘서트무대



피아노 천재 오유진씨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가 마련한 콘서트 무대에 선다.

오씨는 12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의 제작발표회를 겸한 콘서트 무대인 ‘thank you 콘서트’에서 즉흥 연주를 선보인다.

서버트인 오유진은 절대 음감과 함께 음악과 피아노에 천재적 재능을 소유했다.

서버트란 자폐증 등 뇌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와 대조되는 천재성을 동시에 갖는 현상을 이르는 말인 ‘서버트 신드롬(Savant Syndrome)’을 보이는 사람들.

그의 이야기는 현재 KBS 2TV ‘인간극장’의 ‘운진이 동생 유진이’ 편을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다.

‘호로비츠를 위하여’ 제작진이 영화 편집본을 들고 그를 찾아가 출연을 제의하자 “나와 많이 닮았다”면서 선택 출연을 승낙했다는 것.

영화사 싸이더스FNH의 옥진주 씨는 “영화 속 7살짜리 피아노 천재 경민과 오유진 씨가 절대음감과 자폐증 증세를 갖고 있다는 점 등 유사한 점이 많아 섭외하게 됐다”면서 “영화의 감성과 오씨의 음악성이 잘 어우러지는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인스 위드가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계 NFL(미국 프로풋볼리그) 스타인 ‘살인 미소’ 하인스 위드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위드는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538번째 ‘서울 명예시민’이 된 뒤 “감개무량하다”며 짧게 소감을 피력하고, 끝내

서울 명예시민 되고 눈물 흘린 하인스 위드

“한때 한국인인게 부끄러웠다”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위드의 어머니 김영희씨도 그런 아들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위드는 그러나 이내 눈가를 닦아내고 환하게 웃으며 ‘서울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기쁨과 감회를 진솔하게 털어냈다.

위드는 “어릴 때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끄러워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며 “한때 한국인임을 부끄러워 했던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드는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도 줄곧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위드는 “한국의 관습에 대해 아는 것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 정도”라면서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항상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어머니로부터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정신, 열심히 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에도 한국인이나 한국사회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 “더 큰 꿈을 이루려고 낯선 땅으로 나선 어머니의 노고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방 터지는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잃지 않고 특유의 환한 미소로 답했다.

서울시는 이날 위드에게 청계8경도 자기 마그넷(자석)과 서울 사진 화보집(영문판)을, 위드의 어머니에게 나전칠기 경대를 선물했고, 위드는 이명박 시장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위드가 받은 서울시 명예시민증은 지난 1958년 미국인 마커스 W 슈바켄에게 처음 주어졌고, 액션스타 성룡(199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요셉 룩블라트(2001년),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2004년), 월드컵 4강을 이끈 거스 베이저리 경장을 차려 입은 위드는

‘에스콰이어’ 한국판 하인스 위드 표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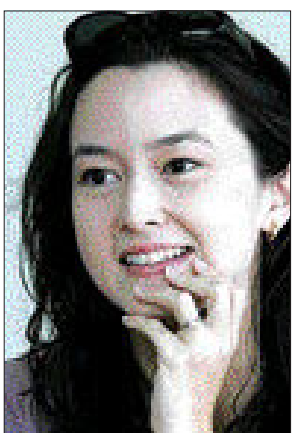
하인스 위드가 남성잡지 ‘에스콰이어’ 한국판의 표지 모델로 나선다.

에스콰이어는 5일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하인스 위드와 인터뷰 및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드는 5월호 표지 모델로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에스콰이어는 위드와 어머니 김영희씨의 인터뷰에서 위드가 아시아-흑인 혼혈의 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미식축구 영웅으로 오르기까지의 사연과 아들을 위해 헌신한 김영희씨의 인생 역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에스콰이어 한국판은 1995년 창간돼 4월 현재 남성잡지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한국계 영화감독 모라 미옥 스티븐스 플로리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재미 한인 영화감독 모라 미옥 스티븐스의 장편극영화 ‘컨벤셔너스(Conventioners)’가 3일(현지시간) 페막된 플로리다영화제에서 최우수 극영화에 주어지는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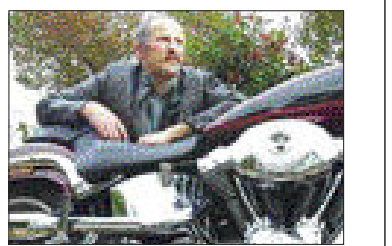
‘컨벤셔너스’는 모라 미옥 스티븐스의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달 17일 미국 독립영화계의 잔치인 2006 인디펜던스 스프링워터에서 한인감독 영화로서는 최초로 존 캐서베츠상을 수상했으며, 트라이베카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LA한국국제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았다.

‘컨벤셔너스’는 지난 2004년 열린 뉴욕 공화당 전당대회를 배경으로 공화당원 남자 매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자 리아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를 그린 멜로 드라마다.

한인 감독으로서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공국제학을 전공한 뒤 뉴욕대 영화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두번째 장편 ‘조지아 히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들이 준 237억 “필요없다”...전액 기증

언론인 가레스 모건씨



뉴질랜드의 한 신문에 경제 문제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가 아들이 벌어들인 4천5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237억 정도)나 되는 막대한 돈이 자신에게는 필요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 일간 도미니언 포스트에 칼럼을 쓰는 경제문제 전문가 가레스 모건(52)은 30대 초반 아들이 창업해 운영하던 뉴질랜드 인터넷 경매회사 ‘트레이드 미’가 최근 호주의 언론재벌 페어팩스에 6억7천만 달러에 팔린 뒤 아들로부터 4천500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물론 이 돈은 모건이 아들 회사

의 주식 지분을 6.7% 보유하고 있던 데 대한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그러나 모건은 젊은 아들이 순식간에 막대한 돈을 수중에 넣으며 뉴질랜드의 갑부 서열 상위 순위로 뛰어올랐는데도 자신은 오히려 아들이 때어준 돈(?)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아내와 의논한 끝에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상 잘할 수 없는 게 축구입니다” 박주영, ‘부진 논란·거품론’ 심경 드러내



“만날 잘할 수 없는 게 축구입니다”

아드보카트호 축구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이 끝난 뒤 불거진 ‘부진 논란’, ‘거품론’ 등으로 혹평을 치렀던 ‘전체 골잡이’ 박주영(22·FC 서울)이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냈다.

박주영은 스포츠전문 월간지 ‘스포츠온’ 4월호에서 신문선 SBS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잘하는 선수로만만 잘할 수 없는 것이 축구다. 하물며 저는 여전히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또 “안티팬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지만 모두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있어서 축구를 시

작했고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불을 찬다는 자체가 행복인데 서운한 게 어디겠느냐”고 털어놓았다.

소속 팀과 청소년대표팀에서 출골 중양 공격수 자리만 지켰던 박주영은 아드보카트호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나서면서 불거진 포지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코칭스태프가 주문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독에게 다시 물어보고 훈련과 실전으로 감을 잡았다”며 “실수를 하면서 느끼고 다시 한번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하고 연습하면 내 나름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온다”고 했다.

박주영은 이밖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많이 자는 것으로 체력관리를 한다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밝혔으며 향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또 여자친구에 대해 “잘 지내고 있다. 운동하는 사람 사귀는 게 힘든데 늘 고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카레이서 해볼까’



생존율 47%의 고환암을 극복하고 프랑스도로 일주(투르 드 프랑스) 7연패 위업을 이룬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4·미국)이 카레이싱 대회에 참가한다.

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오는 5월28일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자동차 경주 전용트랙에서 열리는 ‘제90회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레이스(인디 500)’에서 페이스트(본격 레이스 전에 선두에서 출전차량을 이끄는 차량)를 맡는다.

암스트롱이 몰게 된 페이스카는 ‘2006 시보레 코베트 206’로, 최대속도가 시속 300km 이상이고 출발부터 시속 100km까지 올라는데 순간 가속도 시간은 4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코베트 시리즈 중 최상급 버전.

암스트롱은 정식 출전하는 33대의 스포츠카를 이끌고 트랙을 돌다가, 이들 차량이 최고 속도를 낼 준비를 마치면 트랙에서 빠져게 된다.

‘국민 우익수’ 이진영 유니폼 285만원에 팔려



프로 야구 SK와 이 번스 ‘국민 우익수’ 이진영(26) 유니폼이 285만 원에 팔린다.

SK는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엔게임(www.mgame.com)과 함께 이진영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유니폼을 경매한 결과 이 액수로 최종 낙찰됐다고 5일 밝혔다.

이진영이 WBC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보일 당시 입었던 유니폼 상의 1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매는 시작 사용만에 입찰가가 100만원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경매 수익금은 SK의 연구지원 인선에 있는 초등학교 야구팀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최석채 선생 흉상’ 건립

한국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세계 언론 자유영웅으로 빛나는 몽향(夢鄉) 최석채(1917~1991) 선생의 흉상이 대구시 중구 계산동 매일신문 사옥에 건립됐다.

박완서씨·김기문 교수 등 5명 호암상 수상



김기문 교수 박완서씨 신강근 교수 최용원 교수 윤기 회장

김기문 포항 공대 교수와 박완서씨 등이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은 5일 오후 호암상 수상자로 과학부문의 최석채(52) 포항공대 교수, 예술부문의 소설가 박완서(여·75)씨, 공학상 신강근(60) 미국 미시간대 석좌교수, 의학상은 최용원(44)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봉사상 수상자 윤기(64)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등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윤기 회장은 지난 1928년 부친이 설립한 목포공생원을 대를 이어서 봉사해왔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거행되며 이들에게는 각각 2억원의 상금과 메달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는 6월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거행되며 이들에게는 각각 2억원의 상금과 메달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사

◆일동제약 그룹 ◇송진 ◆일동투디스 대표이사 사장 이문수 ◆유니기획 대표이사 부사장 박용형

내방

▲이병록씨(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이호준씨(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정일웅씨(한국기차협회장) ◆김옥조씨(광주·전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 속

▲이은재씨 장남 준영군 이동진씨 장녀 주연양=23일(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호텔 농심 크리스탈홀(하심청 2층). 피로연: 8일(토)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학동 목화회식당 지하 분관 식당 222-9234 ▲이현근씨 막내 형연(전남대병원 의사)군 이용보(조선대 교수)씨 차녀 효민(각화초교 교사)양=8일(토) 오후 1시50분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특실. ▲김중권(동부새마을금고 부이사장)씨 민(곡성군청)군 이기영(자영업)씨 장녀 하나(오곡면사무소)양=8일(토) 낮 12시 곡성군 곡성을 협박회식당 2층. ▲문영애씨 장남 박중호군 이철원(도청 행정과장)씨 장녀 은혜양=8일(토) 오후 1시 월산 4동 건강관

리협회 및 동반 광주 별업교회 ▲장광식(광주상무초등학교장)씨 아들 웅군 김명선(함평월야초등학교장)씨 딸 보람양=8일(토) 낮 12시2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홀. ▲이화호(전 한국주차사업회 회장)씨 3남 한중(사업)군 조병화(남평중학교 교장)씨 3녀 아라(조대병원)양=8일(토) 낮 12시20분 경북공영컨벤션홀 1층. ▲오제택씨 장남 중록군 최형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씨 장녀 희영양=8일(토) 오후 1시 경북공영웨딩홀 4층 컨벤션홀 ▲김중찬씨 장남 마성군 김성웅씨 장녀 하나(래양)=9일(일) 오후 1시20분 꿈의궁전 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 ▲김영(광주보훈병원장)씨 3남 현석군 박중문씨 차녀 숙현양=9일(일) 오전 11시40분 에블루션웨딩

컨벤션 1층 세이저홀. ▲최병래(영양교육장)씨 차남 정준군 강성만씨 장녀 시현양=9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상록예식장 3층 무궁화홀. ▲서양현(남평 이천식품공업사 대표)씨 장남 명승군 정병조씨 장녀 승희양=9일(일) 낮 12시40분 광주 유토피아웨딩홀 2층 루비홀. ▲이영규(광주지방국세청 남제지 원국장)씨 차남 민교군 김국중씨 4녀 원영양=9일(일) 오후 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김석주씨 차남 창근군 정기두(담양읍 부유장)씨 장녀 세림양=9일(일) 오후 1시 담양축협회관 4층 ▲고 오승운(화백)씨 차남 병재군 백운수씨 장녀 연아양=16일(일) 오후 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향우회

▲재광 강진군 향우회(회장 김영현) 월례회=10일(월) 오후 6시30분 북구 유동 아미회관 523-5885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5회 동창회(회장 안영순) 월례회=7일(금) 오후 6시 일송정 525-9977 ▲광덕고 총동창회 체육대회=9일(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 및 강당. 019-511-4969 ▲니주봉향 초등학교 37회(회장 정천열) 동창회 춘계 정기회=9일(일) 낮 12시 나주호 인교 오월집 061-337-3411 ▲복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최광남) 월례회=10일(월)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525-7393 ▲복성중 제 8회 동창회(회장 박수광)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30분 북마을식당 223-0750

▲복성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최홍주) 월례회=11일(화) 오후 7시 고덕 영광골비정식 222-5354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6시30분 일억초 223-7898 ▲복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중우) 월례회=13일(목) 오후 6시30분 일억초 223-7898 ▲동국대 정기총회=7일(금) 오후 6시30분 진수정 383-9289, 017-601-9955 ▲알림 ▲무등골 사람들 야외 사생=8일(토) 오전 8시 남평역 출발. 회원들을 대상으로 완도 청산 스케치. 010-3163-4291 ▲제12회 전국 초등학생 대상 글연결기 공모=초등학교 2~6학년 대상으로 ‘휴먼’을 주제로 원고지 7매 내외로 작성. 4월 28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소년한국일보 사업부’ 문의 02-7244-2408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 사전예약 062-223-9191 ▲국기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모 집 ▲전남체신청 장애인방문 정보화 교육 신규강사 모집=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IT 활용능력 보유하고 있는 고졸 이상 학력자. 신청서 접수기간은 16일까지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문의 600-4814 ▲부 음

▲선판순씨 별세 김인식(병도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현수(포양토건)씨 조모상=발인 6일(목) 한국병원 영안실. 011-602-9576 ▲배일순씨 별세 임만호·영화·영란·옥련·영금·옥금씨 모친상 정남진·조병우·정용남·고재승씨 빙모상=발인 7일(금) 금호장례식장 402호실 227-4314. ▲염동술씨 별세 치열·경천·향·세라씨 부친상 김창기·송범식씨 빙부상=발인 7일(금) 금호장례식장 201호실 227-4381 ▲김월씨 별세 심태식·귀식·을식·강식·승식씨 모친상=발인 7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광주에서 30년 아름다운 정계공민 기적남김모특별분양 11월 (062)521-1100

2000평의 주차장 무료이용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천) 대표: (062)515-4488